



정형화된 공간구성을 벗어나 이용자의 취향에 맞춘 '특화평면' 아파트들이 인기를 얻고 있다. 동일면적의 다른 아파트에 비해 광폭 거실을 채용해 개방감이 뛰어난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아파트'.

사진제공 | 현대산업개발

체감면적 UP...특화평면 APT가 대세

중소형아파트에 4베이 4룸·팬트리 등 도입
공간 활용 극대화...청약시장서 좋은 성적

“소형아파트를 중대형처럼!” “평면으로 소비자를 잡아라.”

올 상반기 신규분양시장의 대표적인 키워드는 ‘특화평면’이다. 최근 신규분양 아파트는 4베이에 3면 발코니는 기본이다. 이제는 중소형아파트에 중대형급 드레스룸을 도입하거나 4베이 4룸구조, 팬트리(특별수납공간) 등 특화된 평면으로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이는 아파트 입지나 교통 교육여건 등 전통적인 선택기준에 입주자들의 ‘삶의 질’ 향상까지 고려한 것으로 아파트 크기는 같지만 신평면 설계로 소비자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이다.

●체감면적 넓힌 특화평면아파트 분양 성적 호조

체감면적을 넓힌 이런 ‘특화평면 아파트’는 실제 청약시장에서도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 2월 청약접수를 받은 경기 용인시 ‘힐스테이트 기흥’는 전체 중 소형인 전용면적 72㎡ A형이 가장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률은 34가구 모집에 463명이 접수해 13.62 대 1이었다. ‘힐스테이트 기흥’의 분양 관계자는 “소형인 72㎡A에 설계한 팬트리가 입주자들에게 중형 같은 공간감을 제공한 것이 성공 이유”라고 설명했다.

지난 15일 한신공영이 분양한 배곡신도시 ‘시흥 배곡 한신휴플러스’는 전체 1321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평균 1.58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특히 1순위 68㎡의 경우 50가구 모집에 209명이 몰리며 4.1대 1의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다. 성공의 이유는 68㎡의 개방감과 공간감을 크게 향상시킨 4베이 특화 평면 설계가 꼽혔다. 또한 따로 마련된 대형 수납공간은 입주자의 편의성을 적극 고려했다는 평가다.

●5월에 주목할 만한 특화평면아파트

이러한 트렌드에 맞춰 최근 중소형 아파트를 분양하는 건설회사들은 특화평면설계를 적용하고 있다. 팬트리와 대형 수납공간 외에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광폭 거실, 거실을 운동장처럼 넓게 설계해 공간 활용과 개방감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층고나 천장을 높이는 등의 평면으로 수요자들의 이목을 사로잡는다.

5월 분양을 앞둔 건설사들도 특화평면아파트를 앞세워 입주자들을 공략하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하는 전북 군산시 미장지구 A1-1블록의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는 전용면적 74㎡에서 4.8m의 광폭 거실을 적용하고 있다. 동일평형대의 아파트에 비해 실내가 더욱 넓어져 개방감이 뛰어나다. 또한 74㎡ B타입에는 현관 옆으로 창고형 수납공간을 제공해 부족한 공간을 보충한다. 74㎡D타입 역시 서비스 공간 확보와 현관 창고 등 풍부한 수납공간을 제공한다.

금성백조주택이 분양중인 대전 관저지구 C1블록 ‘관저에미지 명가의 풍경’ 역시 특화평면설계가 적용됐다. 75㎡의 경우 3면 발코니 적용으로 넓은 실사용 면적을 자랑하며, 주방 팬트리가 설치돼 있어 여유로운 수납공간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거실과 주방 분리형으로

독립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기준 75Am* 208가구, 75m*B 타입 209가구, 84m* 477가구, 95m* 100가구 등 중소형 위주로 설계됐다.

협찬건설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1신도시 능동 1065-1번지에서 ‘동탄 헤리움’을 공급한다. 안팎수치를 적용한 이 단지는 벽 두께를 제외하고 평수를 계산한다. 때문에 실제로 느껴지는 공간감은 타 오피스텔보다 더 넓은 수밖에 없다. 또한 와이드 평면설계를 적용해 타 오피스텔보다 약 60cm 더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

현대산업개발이 수원시 권선동에서 분양하는 ‘수원아이파크시티 5차’도 특화평면으로 설계했다. 전용 31㎡에서는 보기 드문 ‘c’자형 주방이 설치되고, 45㎡에는 현관 옆 창고형 대형 수납공간과 별도 세탁실도 제공하는 등 하지만 활용도 높은 특화평면으로 설계된다.

부동산리서치전문업체 리얼투데이 리서치실 서윤석 연구원은 “공간 활용도가 좋은 특화평면 아파트는 비교적 저렴한 중소형 분양가로 중대형에 거주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중소형에 대한 수요가 날로 치솟는 가운데, 특화평면설계를 적용시킨 중소형 아파트의 인기는 당분간 지속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연재호 기자 sol@donga.com

5월 분양예정 특화평면 아파트 (단위: m²)					
사업명	위치	전용면적	총가구수	특징	분양문의
현대산업개발	전북 군산시	74~101	540	광폭거실,	063-451-2333
‘군산 미장2차 아이파크’	미장지구			창고형 수납공간	
현대산업개발	경기 수원시	31~74	550	‘c’형 주방,	031-232-1700
‘수원아이파크시티 5차’	권선동			창고형 수납공간	
금성백조주택	대전 서구	75~95	994	3면 발코니,	1899-0023
‘관저에미지 명가의 풍경’	관저지구			주방 팬트리	
협찬건설	경기 화성시	20,21,25	956	와이드 평면설계	031-891-6900
‘동탄 헤리움’	동탄1신도시			60cm 공간 제공	

자료 : 리얼투데이(※는 오피스텔)

전남 구례군, 올해 1분기 땅값 상승률 ‘최고’

생태공원조성·귀농 등 효과...1.71% ↑

전남 구례군이 올 1분기 중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1분기 전국 땅값은 0.48% 상승해 53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토교통부가 26일 발표한 ‘1분기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전남 구례군의 땅값은 생태공원조성사업 등 개발과 귀농 및 전원주택 수요 증가로 1.71% 올라 전국 평균(0.48%)보다 1.23%포인트 높았다.

지역별로는 전국 17개 시·도 땅값이 모두 상승했다. 수도권은 0.46%, 지방은 0.52% 올랐다. 서울(0.57%)은 2013년 9월부터 19개월 연속 소폭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경기(0.35%)·인천(0.37%) 지역은 전국 평균을 하

회했다. 지방에서는 세종시와 대구가 0.87% 상승했고, 부산(0.63%)·광주(0.59%)·경북(0.53%) 등이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또 전남 나주(1.43%)와 경북 예천(1.03%)도 비교적 큰 폭으로 올랐다. 나주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나주역 인근 부동산 가격 상승에 힘입어 강세를 보였다. 예천은 도청신도시 내 택지거래 증가 및 예천 제2농공단지 개발 등에 힘입어 상승세를 나타냈다. 경기 하남(1.02%)과 서울 강남구(1.02%)도 각종 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1% 이상 상승했다.

반면 충남 태안군의 땅값은 0.18% 하락,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하락 원인은 안면도 개발사업 중단(2월) 때문으로 분석된다.

연재호 기자

동아전람 주관 ‘MBC건축박람회’ 29일 개최

350여 업체 참가·3000여 아이템 전시

동아전람이 주관하는 ‘제38회 MBC건축박람회’가 이달 29일부터 5월2일까지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다.

‘사이버 건축박람회’와 병행해 동시 개최되는 이번 박람회는 건축자재와 인테리어, 냉·난방기자재, 공공시설 및 조경, 전원주택, 조명, 디지털프린팅·사인, 가구전으로 꾸며진다.

2015년 최신 건축자재와 정보를 선보이는 이번 박람회에는 350여업체가 참가해

3000여 아이템을 전시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동아전람은 같은 기간 ‘제8회 동아 홈&리빙페어’와 ‘제5회 동아 판촉 및 선물용품 박람회’, ‘제3회 동아 차·공예 박람회’를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연다. 이번 박람회는 가전과 주방용품, 육식용품, 홈인테리어, 판촉 및 선물용품, 차·공예품 등이 전시된다. 참가업체에 신제품 홍보와 마케팅 장소를 제공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킨다는 목표다.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핑크리본 마라톤’, 5000여 부산시민 함께 달렸다

아모레퍼시픽 주관·유방건강재단 주최
부산대회 시작으로 전국 5개 도시 개최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하고 한국유방건강재단이 주최한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부산대회가 26일 오전 부산 요트경기장에서 열렸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부산대회에는 5000여 부산 시민들이 참석했고, 미장센과 한울 브랜드의 전속모델 유아인과 임지연이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또한 헤라(HERA), 아리따움 등 핑크리본캠페인 후원 브랜드들의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렸다.

㈜아모레퍼시픽은 2000년 설립기금 전액을 출자에 국내 최초의 유방건강 비영리 공익재단인 한국유방건강재단을 설립하고 핑크리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핑크리본 사랑마라톤’은 핑크리본캠페인의 대표적인 행사로 올해로 15주년을 맞았다. 부



㈜아모레퍼시픽이 주관한 ‘2015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부산대회가 26일 오전 부산 수영만요트경기장에서 열려 5000여명의 참가자들이 힘차게 달리고 있다.

사진제공 | ㈜아모레퍼시픽

산대회를 시작으로 5월 대전, 6월 광주, 9월 대구, 10월 서울 등 전국 5개 도시에서 열린다. 대회 참가비 전액 및 아모레퍼시픽의 매칭 기프트, 협찬사 기부금 등을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한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60년 전통! 그 명성과 맛이 성공입니다

상표번호:4-1998-033502-1 NAVER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테이블 (49㎡) 8개 일매출 100~200만원! 맛으로 소문난 외식 사업은 불황이 없습니다.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점 전국 대모집

장사가 안되시면 간편만 바꿔서 **대박** 내세요!!

메뉴가 좋아야 대박이나겠조 자신있게 추천합니다!

300만원 오픈

오픈시 1,000인분 자원 팔아서 갚으세요!

소머리국밥 6,000원

맛, 영양, 가격으로 어디서나 대박!

주요메뉴: 순대국 / 장터국밥 / 갈비탕 / 갈비찜 / 설렁탕 / 소머리수육 / 감자탕 / 소금창전골 등
식사·안주·찜류·전골류 (20여종)메뉴구성은 지역과 풍수에 따라 선택

일매출 17만원에서 메뉴전환으로 일 130만원 판매중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의 성공이유!

- 1) 소문난 맛집으로 고객이 찾아옵니다.
- 2) 투자비가 적습니다.
- 3) 매출에 따른 마진이 많습니다.
- 4) 24시간 영업으로 매출증대
- 5) 전매제 완제품 물류 공급, 단순 찬류로 관리가 쉽습니다
- 6) 전문 주방장이 필요없이 인건비가 적습니다.
- 7) 포장판매가 많습니다
- 8) 기존시설비용 - 메뉴와 간편한 교체 최소비용으로 오픈가능합니다.
- 9) 평생 먹는 국민 음식으로 남녀노소 고객층이 무한합니다.

브랜드 출시 3개월만에 100호점 계약

공지암 할매 소머리국밥 가맹문의:1588-3892

지역도 영업소 집: 당사에서 생산한 전 품목 및 전 브랜드 가맹점 영업 상담, 물류 공급, 식당, 단체급식 납품할 분을 모집합니다.